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2 - 39호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2년「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계기교육 자료안내

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매년 5월 11일) 법정 기념일 :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2. **배경 :**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에 걸쳐 나이어린 왕들이 즉위하자 안동 김씨, 풍양 조씨로 이어지는 세도정치(외척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치의 기강 문란을 가져왔다. 중앙정치의 문란은 탐관오리의 득세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는 동요되고 삼정(봉건적 수취체제의 기본이 되는 전정(토지세), 군정(16-60세에 해당하는 성인남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는 세금), 환곡(춘궁기에 관곡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한 제도))의 문란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관들의 수탈로 농촌사회의 파탄을 가져왔고, 지주제의 확대 발전과 농법(이앙법)의 발달은 농촌사회의 계층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산 속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어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고, 이로 인한 민중의 불만이 더욱 커지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량 공급지가 되어 버리면서, 값싼 생필품을 미끼로 한 일본의 쌀 수입이 늘어나게 되자 국내 쌀값은 폭등하게 되어 조선 민중은 고물가와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되었다. 관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민중을 수탈하였으며, 관직을 직접 매매하는 매관매직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돈으로 벼슬을 산 관리들은 그 동안 들인 비용 충당과 축재를 위해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름으로써 민중의 삶은 고통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봉건사회 경제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봉건통치 계급의 무자비한 착취와 외세 자본주의 침략에 대항한 민중의 저항의식으로 발전되어갔다. 이와 같이 봉건체제의 모순이 깊어가는 가운데 1862년 이래 삼남의 70여 고을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농민봉기는 1892년경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3. **역사적 의의 :**
1894년 1년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으며, 1892년에서 1893년 까지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하였는 데,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다.
-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 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다.
-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 활동,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4. **요약 :** 동학은 경주출신의 몰락 양반 **최제우**가 자본주의 열강이 점차 침략의 야욕을 뻗쳐오던 1860년 서학(천주교)에 대항하여 창시한 민족종교였다. 동학사상의 핵심내용은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봉건 지배계층은 백성을 오로지 수탈의 대상으로만 보았으나 동학은 평등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봉건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볼 때, 유교적 기존질서를 뒤흔드는 불온사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이념이었기에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갔다.

2022. 05. 11.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